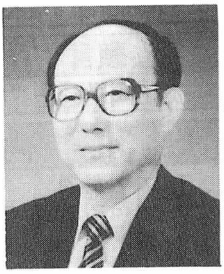
卷頭言

文化國民다운 "매너"와 文化的 公園雰圍氣



李 賢 宰
〔國立公園協會 會長〕

산들바람이 불고 단풍이 산악을 찬란하게 수놓아가면 國立公園을 비롯한 이곳 저곳의 自然公園은 行樂人波로 줄을 잇는다.

人間이 近接할수록 자연은 그 빛을 잃는 것이기에 사람들이 몰려들면 자연은 그만큼 受難을 겪게 되고, 試錬을 당하는 것은 뻔한 이치다.

그러나 自然公園도 公園인 만큼 探訪客이 찾아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찾는 이들로 하여금 유익하게 즐길수 있도록 알뜰한 配慮가 있어야 함은 勿論이다.

다만 아름다운 自然文化空間을 文化國民답게 이용할줄 아는 洗練된 "매너"와 生活文化가 아쉬울 뿐이다.

나 혼자만의 專有物이 아닌, 天下萬人의 것이라는, 더 나아가 우리 사랑하는 후손들의 것이라는 素朴한 의식에 바탕한 公衆道德관념이 체질화되어야 하는데도 우리네 現實은 그에 미치지 못하니 아타깝기만 한 것이다.

우리가 흔히 文化를 논할때 古美術品이나 博物館등 文化遺産보다는 도리여 그 民族의 생활태도와 행동양식을 실제적인 評價대상으로 삼는다 함은 보편적인 견해이다.

훌륭한 文化的空間은 그 속에서 살아움직이는 各個體들 모두가 文化的인 調和를 이룰때 비로소 참다운 文化的 價値를 發하는 것이다.

文化생활이라 하면 그 어떤 意味에서건 "美"의 創造에 참여하는 動作일진대 항차 低質스럽고 누추한 行動擧止로서야….

自然이라는 文化空間의 動的인 構成員으로 名實共히 손색이 없으려면 우선 자기자신이 진정 자연을 사랑하는 사람인가를 自問自答해보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는 自然景觀資源을 그 어떤 파괴로부터도 지켜야겠다는 強한 책임감에 불타고 있는가를 되물어 보라. 결국 自己省察로 스스로를 컨트럴하는 수밖에 다른 道理가 없다.

우리 祖上들은 山에 精氣가 있다고 믿었다. 깊은 山, 큰 山은 그래서 靈山이었다. 靈山, 名山의 山神께 國泰民安을 빌었고, 兩順風調 풍년을 기원하였으며 수백년 된 당산나무에도 금줄이 둘러져 마을의 守護神으로 崇仰받는 것이다. 技術이나 科學의 렌스로는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이라고나 할까…….

어떤 文人은 "自然은 神秘를 낳고 機械는 機能을 낳고 人間의 마음은 感動을 낳는다"하였거니와 大山 名山을 찾을 때만이라도 너나할것 없이 神秘主義者가 되어보자.

다소곳한 마음으로 온갖 自然의 소리를 들으면서 大自然, 大宇宙의 신성한 氣와 小宇宙로서의 自身의 氣를 은근히 조율하고 합해보는 것이다.

첨단기술이 주도하는 오늘의 세계속에서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는 기계소리와는 전혀 다른 소리와 만날 수 있으리라. 그리하여 生命循環의 場에서 들려오는 엄숙한 생명의 소리가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原初的인 그 무엇을 感知할수도 있으리라.

끝으로 하나 지적해 둘 것이 있다. 빨간 페인트로 深山溪谷의 보기좋은 바위에 十字를 그려넣는 소견머리 없는 基督狂信徒들의 作態도 문제려니와 스피커에 念佛 카세트테잎을 高聲放聲으로 틀어놓고 山中 靜寂을 온통 뭉개버리는 一部 山寺僧侶들의 沒知覺도 한심하기 그지없다. 낭랑한 肉聲으로 아련하게 들려오는 讀經소리는 文化的境地에 속하지만 擴聲器를 통해나오는 金屬性음향은 당초에 騷音公害다.

당사자들의 猛省과 함께 管理所當局의 誠意있는 대처에 의한 文化的 공원분위기 조성이 요청된다.